

지역 소식통

김제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강화

김제소방서(서장 윤병현)는 화재·구조·구급상황 발생 시 음성 통화 이외에도 문자, 119 신고 앱, 영상통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문자와 영상통화,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119앱(App) 신고는 앱을 통해 신고서비스를 터치하기만 하면 GPS 위치 정보가 119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산이나 바다, 고속도로 등 재난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유용하다. 또한 산에서 실족 사고를 당한 경우 위치를 잘못 모를 경우, 국가지점번호관(한글2글자, 숫자8글자)의 QR코드나 사진을 찍어 119에 음성, 문자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 휴대폰 문자 신고는 수신자(받는 사람)에 119 숫자를 입력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접수된다. 사진이나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다.

윤병현 서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기존의 음성통화 방식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어린이집 원아 초등생 전원 마스크 지급

완주군이 어린이집 원아 초등학생 전원에게 면 마스크를 지급했다.

14일 완주군은 지난 3월부터 자체적으로 면 마스크를 제작해 전 세대에 배부한데 이어 면 역력이 취약한 어린이집 원아, 초등학생을 위한 마스크를 추가 제작해 1인당 2매씩 제공했다고 밝혔다.

관내 어린이집 원아는 1941명이며 초등학생은 4767명에 달한다. 군은 1만3600장을 추가 제작했다.

본격적인 등교에서 앞서 군이 면 마스크를 지급, 완료하면서 학생, 학부모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피해자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극심한 육체·심리적 고통 호소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 '피해자 대상 심리지원' 해법 제시

국내 대표 심리지원 연구기관인 우석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지원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 14일 우석대에 따르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심리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가 기존 연구자료 분석 및 문헌 연구, 전문가 표적 집단면접법, 국내외 참사 심리지원 관련 문헌 연구와 기존 지원센터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간결한 일괄지원제도 도입, 독립적인 심리지원센터 건립, 피해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필요,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에 기반한 심리지원 전문가 양성과 교육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운태 소장(유아특수교육과·심리운동학과 교수)은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이 지난날 6일을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돼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극심한 육체·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 그러면서 "최근 개정된 특별법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조항도 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건 해결에 작은 진전을 이뤘다는 측면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연구보고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지원 모델을 제시했으며, 피해자의 아픔에 사회적 공감을 넘어 전문적인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는 그동안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비롯해 원주귀래 사랑의 집 사건, 영전 강계노역 사건, 서울 인강원 피해 사건, 남원 평화의집 사건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현대자동차가 어린이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무상으로 항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차량 '무상 항균 서비스' 실시

현대차, 코로나19 예방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대상 서비스 실시

현대자동차가 어린이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특별한 서비스를 마련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현대차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원길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5월15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무상 항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차량으로 현대차 스토렉스, 카운티 등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차장 및 인근 대형 주차장에서 무상으로 차량 실내에 항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들은 현대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현재 긴급 보육에 이용되는 어린이 통학차량과, 추후 재개원 예정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차량의 감염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전자시스템, 엔진룸,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전반을 점검해주는 '차량 진단 점검 서비스' ▲미세먼지 차단 에어컨 필터, 와이퍼 블레이드,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등 일반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소모품 교

환·보충 서비스' 등을 실시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원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는 '차량 진단 점검 서비스'와 '소모품 교환·보충 서비스'를 코로나19 감염 및 의심 환자 이송에 사용되는 전국 소방청 구급차에 확대 운영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구급차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필요한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의 30%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대모비스도 미세먼지 차단 에어컨 필터를 비롯한 소모품 일체를 현대차에 지원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22개 서비스센터와 1374곳의 블루핸즈에서 현대차 차량과 서비스 거점에 입고된 타사 고객 차량에 '특별 무상 차량 항균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판매와 정비 등 고객과의 모든 접점에서 손 소독제 비치, 임직원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 온라인과정으로 받으세요"

농정원, '농업교육포털'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사무소장 설동화, 이하 '농관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나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2년 주기로 인증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업인 등은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과정과 전국 시·군 단위 집합 교육과정(현재는 코로나19로 잠정 중지됨) 중에서 편리한 과정을 선택해 인

증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업 온라인 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접속하여 연중 어느 때나 받을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PC)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 신청 분야에 따라 3개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어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농업교육포털'에는 친환경 농업 과정 외에도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함께 이용 가능하며, 장애 발생 시 콜센터(1811-8656) 상담 및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과정은 교육 참여자가 8차로 구성된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영상과 그래픽을 활용했다.

젊은 초보 농업인이 친환경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기준과 인증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을 개인 방송 채널로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하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을 직접 만나서 경험담을 듣고 실제 농업 현장을 소개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제작하였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의 원칙과 기준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기준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월동, '코로나19' 대응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추진 완료

김제시 교월동사무소(동장 정우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을 지난 7일부터 22세대 286명에 대해 신청 및 접수 받아 추진했으며 지난 14일 지원 완료했다.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만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의 김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를 돕기 위한 것이다.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빠르고 신속

하게 아동돌봄쿠폰(김제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 대상 가정에 신청서를 동봉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자별 신청일자를 안내하여, 신청서를 미리 작성 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상품권 수령을 위한 대기시간 및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청장소 또한 2층 주민자치실에 별도 마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였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



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내수면 불법어업 년중 단속... 수산자원 보호

김제시는 2020년도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계획에 의하여 올해는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기간을 년중으로 설정 수산자원보존과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예방·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인 내들이 낚시객을 포함한 유어인구 증가 및 생계형 불법어업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자원남획이 우려되고 있어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보호 및 불법어업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와 수협 및 민간단체가 중심으로 비어업인과 어업인께 불법어업에

방 및 지도·단속 교육 및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실시한다.

특히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 및 면허, 허가, 신고내용 위반행위, 포획금지기간 구역 및 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 등 유해어업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짐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